

목포시 '김 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진흥구역 지정·마른김 거래소 도입·김 박람회 등 추진

목포시가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목포시는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산업 전문기관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품질향상 및 세계화 촉진 등 김산업 전반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김을 최초 10억 달러 수출 식품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수

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0월 해수부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공고에 따라 출연기관인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12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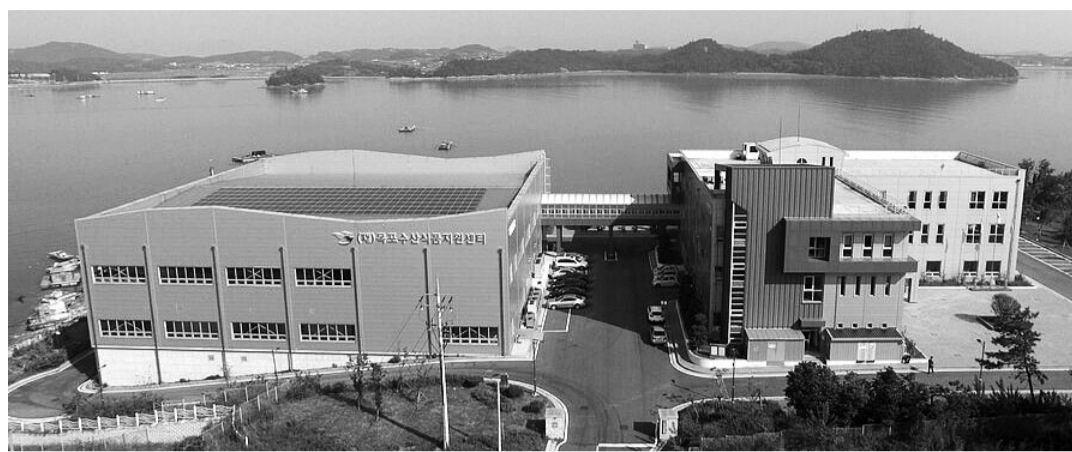
이로써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수산물식품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토대로 김 제품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안전성 연구 등 김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가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을 노려온 것은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물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해 세계적인 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우리나라 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낙도 ‘사랑의 가위손’ 겨울에도 출동합니다”



신안군복지재단 낙도이미용센터, 하의면 장병도·능산도 봉사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이충만) 낙도이미용센터는 최근 하의면에 위치한 장병도와 능산도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20여명의 미용사 및 관계자가 참여해 주민들에게 컷트, 염색, 파마를 실시했으며, 평소 교통편이 불편해 지원하기 어려웠던 사람의

발, 파스, 마스크 등의 후원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장병도 이영길 이장은 “섬 주민들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욕지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 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충만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

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낙도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우리 재단은 복지소의 계층이나 낙도 주민 등 복지서비스의 틈새가 없도록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新安군복지재단 낙도지원센터는 낙도 33곳 48개소에 정기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ee@kwangju.co.kr

신안군, 1조 7000억 국비 확보 나서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총 79건 예산 추진 상황 등 점검

신안군이 '2024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총 79건에 1조 7111억 원 규모의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신규사업은 34건에 총사업비는 3478억 원 규모로 2024년 국비요구액은 453억 원이며, 이와 함께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사업 건의액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섬 해양자원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 구축 25억원 ▲유네스코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4억원 ▲신안 갯벌 생태탐방로 조성 20억원 ▲공영제 여객선 건조 지원 30억원 ▲1심 1테마정원 6차산업 육성 50억 원 등이며, 계속사업으로는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100억원 ▲신안군 암태-추포 갯벌생태계 복원 14억원 ▲비금-암태 연도교 건립 370억원 ▲2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 1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05억원 등이다.

또한 박우량 군수가 직접 의견을 제시한 '돌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수출 김 대형 냉동저장 시설 설치' 및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추가 사업들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보고회에서 논의된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 보완해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개발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발굴된 사업의 최종 반영 이외에도 정부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응모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ee@

영암문화원 '송년음악회'

내일 한국트롯가요센터공연장

영암군이 재즈피아니스트 성현웅 씨를 초청해 23일 오후 2시 한국트롯가요센터 공연장에서 '군민위안 송년음악회'를 연다.

영암문화원(원장 김한남)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이태원참사 등으로 갖지 못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송년음악회를 기획 했다.

수준높은 피아노 연주와 바이올린·첼로 협연 그리고 테너, 바리톤, 팝·상송, 팝·가요, 알토·테너 색소폰, 시낭송·가요와 영암문화원의 파더싱어즈(남성중창단) 등 품격있는 출연진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 출연진은 9개 프로그램에 모두 25인으로 그랜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저물어 가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프닝은 '다뉴브강의 잔물결'과 '스켓팅 왈츠



성현웅(왼쪽) 재즈피아니스트가 오는 23일 영암군 송년음악회에서 공연한다.

곡'이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되고, 바이올린·첼로와 피아노 앙상블 트리오 무대는 영암의 고정 선성의 바이올린과 딸 허연희의 첼로 협연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테너 김창환의 그리운금강산과 오 솔레미오 ▲바리톤 김훈(영암)의 청산에 살리라와 명태 ▲

가수 민수연의 애정의 조건과 켄세라 등으로 꾸며진다.

이어 ▲영암 남성중창단 파더싱어즈의 캔트 헬프 폴링인 어브와 고향의 푸른 잔디, 꽃구름 속에 등이 성현웅 선생의 지휘와 반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에 '전국 최대' 기후대응 농업연구단지

삼산면 일원 60ha... 고구마 연구센터·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 등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논의했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삼산면 평항리에 약 60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도 들어선다.

이와 함께 고구마 연구센터 건립,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증시험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체계적 단지 구성을 위한 시설 조성 구상안과 부문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과수연구소와 연계성, 효율적 연

구시설의 배치계획, 관개용수 확보 방안, 녹지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94억 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3ha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신축한다.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기후변화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는 2024년까지 총 공사비 295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5ha 부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를 신축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 실증포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전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23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고구마 연구센터 건립 등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면적은 약 32ha 규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종만 영광군수, 정부·여당과 소통강화



강종만(맨 왼쪽) 영광군수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무소속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군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영광군 제공>

행안장관 무소속 지자체장 간담회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건의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군수는 전날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무소속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남권 무소속 단체장인 박홍률 목포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인홍 무주군수도 함께했다.

강 군수가 건의한 사업은 '법성향 해상보행교 설

치공사(25억원)', '영광스포츠클럽센터 건립(20억원)', '영광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5억원)'이다.

무소속 강종만 군수는 민선8기 취임 이후 행안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하며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0월에도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 현안 건의사업도 추가 지원을 약속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소외된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이상민 장관과 조수진 의원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 확충과 지역현안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신청사, 현 군청 부지로... 2025년 착공

무안군이 신청사를 현 무안읍 군청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5명 중 19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 심의에서는 현 군청 부지가 만장일치 후보지로 결정됐다.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9개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군청사부지 57%, 무안읍 황도공원 13%, 무안읍 조당대 맞은편 농경지 9%, 오룡신도시 청사부지 16블럭 14%, 기타7%로 나타났다.

군은 내년 4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하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청사신축 TF팀 구성, 군 관리계획 및 군 관리계획시설변경, 2024년까지 현상설계공모 및 군민 공청회,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건립될 청사는 약 80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건축물로 신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로 완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